

鳴梁海戰의 경과와 주요 쟁점 考察

李 敏 雄
(해군사관학교 교수)

- 머 리 말
- 兩國 水軍의 動向과 海戰 背景
- 鳴梁海戰의 경과와 주요 쟁점
- 越冬(高下島)과 수군 再建(古今島)
- 맺 음 말

1. 머 리 말

漆川梁海戰 참패 후 정확히 두 달만에 펼쳐진 명량해전은 西海 진출을 시도한 일본 수군을 패퇴시킨 중요한 일전이었다. 이 해전에 대해서는 통제사로 재임명된 이순신이 시종 계획하고 주도했다는 사실, 상대한 일본군 세력이 최소 10배 이상이었다는 점과 鳴梁의 좁은 水路와 潮流 變化를 이용했다는 특징 등이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¹⁾

1) 趙成都, 「鳴梁海戰研究」, 『軍史』 제4호,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2; 趙浚來, 「壬亂海

그러나 이들 연구성과는 명량해전 이전 시기의 양국 수군 동향 등 해전의 배경 부분을 간략히 다루었을 뿐 아니라, 승리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李舜臣의 개인 능력만을 강조한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쟁점으로 남아 있는 거북선 참전과 鐵鎖 가설 여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 해전 전후 시기의 조선 수군 상황과 전력 재건 과정에 대한 연구도 없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에 주목하려고 한다. 우선 명량해전의 배경 부문은 당시 기록을 토대로 조선과 일본 수군의 해전 이전까지의 동향을 파악하려 하는데, 특히 李舜臣이 西南進하면서 작지만 강한 전력을 구축해 나간 과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것은 명량해전 승리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이어서 해전의 경과 문제는 명량 해협을 전장으로 택한 시기부터 당일의 해전 과정과 전투 직후의 양측 함대 동향까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명량해전에 대한 海戰史로서의 기본적인 이해와 접근이 가능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명량해전과 관련된 주요 쟁점인 거북선 참전과 鐵鎖 가설 여부 등에 대해서도 기존 연구 성과와 관련 사료를 종합하여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진위를 가려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순신 함대의 高下島 移陣과 越冬 상황을 정리하고, 끝으로古今島에서의 수군 재건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이는 명량해전의 역사적 의의와 관련지어 조선 수군이 漆川梁 패전 이후 재건되는 과정을 밝히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명량해전의 주요 경과와 쟁점을 살펴본다면 지금까지 역사적 사실과 說話를 구분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오해와 몇 가지 쟁점에 대한

戰의 勝因과 全羅沿海民의 抗戰, 『鳴梁大捷의 再照明』, 海南文化院·海南郡, 1987; 崔斗煥, 『鳴梁海戰과 강강수월래』, 『龜海 趙成都教授華甲紀念 忠武公李舜臣研究論叢』,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1991; 金一相, 『鳴梁海戰의 戰術的考察』, 『壬亂水軍活動研究論叢』, 海軍軍史研究室, 1993.

의문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諸賢의 질정을 기다린다.

2. 兩國 水軍의 動向과 海戰 背景

이순신은 통제사로 再任命된 丁酉年(1597) 8월 3일, 軍官 등 10여 명을 거느리고 晉州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求禮縣에 도착하였다.²⁾ 이후 계속 西南쪽으로 이동하다가 8월 19일에는 會寧浦에서 慶尙右水使 裴楔로부터 10여 척의 戰船을 인수하였고, 이 기간 동안에 흩어져 있던 수군 장병들이 그의 휘하로 모여들었다. 이점은 鳴梁海戰 당시 조선 수군의 전투력 증가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순신은 출발 다음 날인 8월 4일에 谷城에서 머물렀고, 5일에는 玉果縣에서 李奇男 父子와 鄭思竣 兄弟, 玉果縣令 등을 차례로 만났다.³⁾ 이어서 6일에는 玉果에서 일본군에 대한 정보를 들었고,⁴⁾ 다음날인 7일에는 順天으로 향하였다. 8일에는 順天에서 光陽縣監, 羅州判官, 沃溝縣監 등과 助防將 裴慶男을 만났고, 방치되어 있던 銃筒과 長·片箭 등 무기를 접수하였다. 이어 9일에도 樂安을 거쳐 寶城에 이르는 동안 順天府使 禹致績 등이 합류해 왔다.⁵⁾ 그리고 이 때까지 휘하에 자원해 온 將兵을 취합하여 병력이 60명에서 120여명으로 늘어났다.⁶⁾

2) 『李忠武公全書』 권9, 附錄 1 李芬 撰 「行錄」에 의하면, 이날 李舜臣은 軍官 9명과 牙兵 6명을 거느리고 출발하였다.

3) 全羅南道, 「忠武李公舜臣同殉諸公事實」·「參佐諸公事實」, 『湖南地方壬辰倭亂史料集 4-湖南節義錄』, 1990의 名單에 李奇男과 鄭思竣의 이름이 있다.

4) 李舜臣, 『亂中日記』 丁酉年(1597) 8월 4일~6일.

5) 李舜臣, 같은 책 丁酉年(1597) 8월 7일~9일.

6) 『李忠武公全書』 권9, 附錄1 李芬 撰 「行錄」 丁酉年 8월 초3일.

壯者皆告其妻孥曰 我公至汝不死 徐徐訪來 我則先往從公 如此者比比 至順天得精兵六十餘人 入順天空城 各帶兵甲而行 及到寶城則 一百二十人矣.

이후 8월 19일까지의 행적도 위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먼저 8월 11일에는 임란 초부터 이순신을 수행했던 宋希立이 崔大晟과 함께 합류해 왔다.⁷⁾ 12일은 巨濟縣令 安衡와 鉢浦萬戶 蘇季男 등이 왔고, 13일에는 패전 직후 가족을 싣고 도망하여 물의를 일으킨 慶尙虞侯 李夢龜도 돌아왔다.⁸⁾ 이어 15일에는 寶城의 軍器를 검열했고, 다음 날 寶城郡守와 軍官을 보내 피난 중이던 관리 등을 찾아오도록 하였다. 같은 16일에는 弓匠인 智伊와 太貴生, 그리고 金希邦·金鵬萬 등이 합류하였다.⁹⁾ 결과적으로 이 때에 이르러 그의 휘하 병력이 대체로 수백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⁰⁾

또한 이 외에도 鳴梁海戰에 이순신 휘하 세력으로 참전했거나 戰場 해역에서 함대를 보좌한 遊亂船들이 존재하였다. 이 해전에 여러 아들과 함께 참전했다가 戰死한 馬河秀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고, 이 외에도 현지에서의 참전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遊亂船團의 지도자 吳益昌 등은 義穀을 조달하였고, 해전이 펼쳐질 때에는 배후의 함대세력으로 위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¹¹⁾

결과적으로 이순신 휘하에 모여든 장병들과, 해전 직전에 합류한 주변의 지원 병력은 당시 십여 척의 소규모 함대 전력을 극대화한 중요한 요소들이었다. 이들 중에는 임진왜란 초기부터 이순신 휘하에서 활약했던 군관들이 다수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합류한 장병들이었기 때문에 전투력도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順天과 寶城等地에 산재해 있던 火器를 비롯한 武器를 보충함으로써 함대의 화력을 증

7) 全羅南道, 같은 책(湖南節義錄)에는 宋希立과 崔大晟도 포함되어 있다.

8) 『宣祖實錄』 권93, 선조 30년 10월 戊辰; 李舜臣, 『亂中日記』 丁酉年(1597) 10월 24日條 등에 의하면 李夢龜는 이 사건으로 斬刑이 내려져 處刑된 것으로 보인다.

9) 金希邦은 『李忠武公全書』 권16, 『同義錄』(1989년 成文閣 影印本)에 이름이 있고, 金鵬萬은 『湖南節義錄』에 포함되어 있다.

10) 洪良浩, 『海東名將傳』, 『李舜臣』(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년 國譯本 251쪽)에는 도망했던 병사 수백 명을 불러모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11) 趙浚來, 『壬亂海戰의 勝因과 全羅沿海民의 抗戰』, 『鳴梁大捷의 再照明』, 해남문화원, 1987, 79~82쪽; 馬河秀와 吳益昌도 『湖南節義錄』에 있다.

진시킨 것도 전력에 큰 보탬이 되었다.

한편, 조선 조정은 이 시기에 이순신에게 수군 재건을 맡겼지만 세력이 약해 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육지로 올라와도 좋다는 명령을 내렸다.¹²⁾ 이 명령은 宣傳官 朴天鳳에 의해 정확히 8월 15일에 그에게 전달되었고, 이에 대한 李舜臣의 답을 받은 선전관은 다음날 곧바로 되돌아갔다.¹³⁾ 이때 그가 올린 답은 한 마디로 해전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¹⁴⁾

그 후 이순신은 慶尙右水使 裴楔로부터 함대를 인수받고, 다음날인 8월 20일에 진영을 會寧浦에서 梨津으로 이동하였다.¹⁵⁾ 이 날부터 8월 23일까지 4일 동안 이순신은 癘亂 증세를 보였는데, 한 때 人事不省에 빠지는 등 病勢가 심해져서 23일에는 배에서 내려 浦外에서 조리하였다.¹⁶⁾ 겨우 병세를 회복한 李舜臣은 24일, 곧바로 陣營을 다시 於蘭浦로 이동하였다. 이어 26일에는 그대로 於蘭浦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날 오후 늦게 任俊英으로부터 일본 수군이 梨津에 도착했다는 최초의 보고를 받았다.¹⁷⁾

이로부터 이틀 뒤인 8월 28일 오전 6시경에 8척의 일본 軍船이 불의에 於蘭浦 陣營으로 돌입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것이 일본 함대와 첫 번째 접촉이었는데, 이순신 함대는 이들을 海南반도 남단의 葛頭까지 추격했다가 중단하고 되돌아 온 후 진영을 獐島로 옮겼다.¹⁸⁾ 29일에는 진영을 다시 珍島의 碧波津으로 옮기고, 이 곳에서 鳴梁海戰 직전까지 보름 가량 머물렀

12) 『李忠武公全書』 권9, 附錄1 李芬 撰 「行錄」 丁酉年 9月.

13) 李舜臣, 『亂中日記』 丁酉年(1597) 8월 15일·16일.

14) 『李忠武公全書』 권9, 附錄1 李芬 撰 「行錄」.

時朝廷以舟師甚單 不可禦賊 命公陸戰 公啓曰 自壬辰至于五六年間 賊不敢直突於兩湖者 以舟師之扼其路也 今臣戰船尙有十二 出死力拒戰 則猶可爲也.

15) 會寧浦는 全南 長興郡 會鎮面 會鎮里이고, 梨津은 전남 海南郡 北平面 梨津里(高大 民族文化研究所編, 『韓國古地名辭典』, 1993 참조)이다.

16) 李舜臣, 『亂中日記』 丁酉年(1597) 8월 20~23일; 癘亂은 급성 위장병인 듯 하다.

17) 李舜臣, 같은 책 丁酉年(1597) 8월 24일~26일.

18) 獐島는 於蘭浦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海南과 珍島 사이에 나열된 島嶼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於蘭浦과 碧波津의 중간 지점으로 볼 수 있다.

다.¹⁹⁾ 벽파진 移陣 직후인 30일에는 주변에 정탐을 내보냈다. 이것은 일본 함대의 이동 상황을 먼저 파악하려는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조선 수군은 戰船이 십여 척 밖에 없는 약세였을 뿐 아니라 漆川梁의 敗戰 직후였기 때문에 일본 함대에 대한 공포심을 적잖게 갖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경상우수사 裴楔은 海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8월 30일에는 稱病하며 전라우수영으로 상륙한 후 9월 2일에 다시 도주하였다.²⁰⁾ 이 때 도망했던 배설은 결국 종전 후 고향인 善山에서 체포되어 斬刑 당했다.²¹⁾

명량해전 직전까지 이순신이 확보한 함대 세력은 戰船 13척과 哨探船 32척이 전부였다.²²⁾ 이순신이 남긴 기록에는 당시의 전선 척수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보통 통제사의 장계를 바탕으로 明나라에 移咨하는 것이 상례였던 만큼 『宣祖實錄』의 13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²³⁾ 이 숫자는 배설이 지휘했던 8척의 戰船에 각처의 장수들이 합류하면서 더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8월 중순 조정에 보고할 때까지는 전선이 12척이었고, 그 후 1척이 더 증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²⁴⁾

이순신은 우선 장병의 공포심을 제거하고 海戰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첫 예로 8월 25일에는 거짓 警報를 한 자들을 잡아 처형하여 軍情을 안정시킨 사건을 들 수 있다.²⁵⁾ 또한 9월 7일에는 오전에 일본 함대 일부가 於蘭 앞 바다에 도착한 사실을 보고 받고, 오후에 12척의 일본 군선이 碧波津에 접근해오자 이들을 먼바다까지 추격했다

19) 李舜臣, 같은 책 丁酉年(1597) 8월 28일·29일.

20) 李舜臣, 같은 책 丁酉年(1597) 8월 30일·9월 2일 일기에는 이순신이 裴楔의 逃走 意圖를 알고 있었지만, 稱病下陸을 허락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21) 『宣祖實錄』 권110, 선조 32년 3월 乙酉.

22) 『宣祖實錄』 권94, 선조 30년 11월 丁酉.

23) 趙成都, 『鳴梁海戰研究』, 『軍史』,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7, 36~50쪽.

24) 鄭鎮述, 『명량해전의 함선수 고찰』, 『해군』 제353호, 2001, 65~69쪽에는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있으나, 필자와 달리 12척이 더 정확한 척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25) 李舜臣, 『亂中日記』 丁酉年(1597) 8월 25일.

가 되돌아왔다. 특히, 이순신은 이날 밤 야간 습격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도록 명령하여 일본측의 습격을 좌절시키는 통찰력을 발휘함으로써 장병의 그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이와 동시에 그는 諸將을 소집하여 軍法 施行을 재삼 강조하여 명령에 대한 복종을 다짐받는 치밀함을 보여줬다. 그리고, 重陽節인 9월 9일에는 濟州道에서 가져온 소 다섯 마리를 잡아 장병에게 먹이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하였다.²⁶⁾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제사 李舜臣은 해안을 따라 西南進하면서 수군 병력을 모집하고 군수 물자를 준비하는 등 괴멸 상태에 있던 조선 수군의 전투력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조선 수군의 움직임에 반해 같은 시기에 일본 수군의 상황과 움직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월 16일, 漆川梁海戰에서 大勝한 일본 수군은 이후 더 이상 해전을 계속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뒤, 8월 초순에는 南原城 전투에 참여하였다.²⁷⁾ 南原城 전투에서 단순히 참여한 정도가 아니라 성의 함락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일본 수군은, 全州城 함락 이후 육군 일부와 함께 전라도 지역 점령을 지원하기 위해 南海로 돌아왔다.²⁸⁾

이 때문에 결국 일본 수군이 海上에서 다시 西進하기 시작한 것은 8월 하순경 이후부터였다.²⁹⁾ 즉, 漆川梁海戰 이후 한 달 이상의 공백기가 존재했고, 이것은 이순신을 비롯한 조선 수군이 작지만 강력한 함대를 건설해 나가는 데 유용한 시간이 되었다.

이후 일본 함대는 조선 수군의 잔존 세력을 격파하고 서해로 진출하기 위해 9월 16일 명량해전이 벌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추격전을 전개하였다. 8월 28일, 최초로 조선 함대를 접촉한 후 일본 함대는 전술한 바와 같이 9

26) 李舜臣, 같은 책 丁酉年(1597) 9월 7일·9일.

27) 拙稿, 『임진왜란 해전사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2, 제3장 2절 후반부 참조.

28) 北島万次, 「丁酉再亂과 全羅道 戰鬪」, 『韓·中·日 국제심포지엄 발표논문집』, 전북에향 운동본부·한일관계사연구회, 1997, 130~133쪽.

29) 李舜臣, 『亂中日記』 丁酉年(1597) 8월 28일조에 양국 수군의 첫 번째 접촉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월 7일에 두 차례의 소규모 공격을 감행하였고, 9일에는 조선 함대의 형세를 탐지하는 偵探船을 보내기도 했다. 이상과 같이 조선 수군의 동향을 살핀 결과 일본 함대는 우리측의 전력이 戰船 13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를 격파하기 위해 전 세력을 기울여 접근해 왔던 것이다.

3. 명량해전의 경과와 주요 쟁점

음력 9월에 접어들면서 비 온 뒤에 추워지고 북풍이 부는 등,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가 나타났다.³⁰⁾ 당시 선박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 항해가 불가능했고, 將兵도 추운 날씨 때문에 軍船에서 지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겨울이 되면 彼我 모두 해전을 포기했던 것이 보통이었다.

이순신 함대가 碧波津에 머물렀던 9월 14일, 探望軍官 任俊英이 일본 함대 200여 척 중 55척이 於蘭浦에 도착한 사실을 보고해 왔다. 또한, 붙잡혔다가 도망쳐 온 金仲傑을 통해 ‘일본 수군이 우리 함대를 공격하기 위해 접근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들 정보에 따라 이순신은 즉시 傳令船을 보내 주변의 피난 선박들에게 육지로 대피할 것을 통보했다.³¹⁾

9월 15일,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이순신은 진영을 碧波津에서 全羅右水營으로 옮겼다. 이것은 적은 수의 戰船으로 鳴梁 狹水路를 등지고 싸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날 그는 諸將을 소집하여 鳴梁 해로를 막아 지키겠다는 移陣 경위와 해전 전술 등을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반드시 죽고자하면 살고, 살려고만 하면 죽는다(必死則生 必生則死)’라는 유명한 훈시를 통해 장병들에게 필사의 각오를 요구하였다.³²⁾

30) 李舜臣, 같은 책 丁酉年(1597) 9월 3일~6일·12일~14일.

31) 李舜臣, 같은 책 丁酉年(1597) 9월 14일.

32) 李舜臣, 같은 책 丁酉年(1597) 9월 15일.

다음날인 9월 16일 이른 아침, 別望軍이 수없이 많은 일본 군선이 鳴梁 해협을 통과해 우수영으로 진격해 온다는 보고가 전해지면서 鳴梁海戰은 시작되었다. 이 때 공격해 온 일본 軍船은 133척 적이었는데, 피난민들이 높은 봉우리에서 헤아린 숫자는 300척 이상이였다.³³⁾ 이것은 명량해협 밖에서 대기한 척수까지 합한 일본 함대의 전체 척수였고, 그 중에 133척이 해협을 통과해 鳴梁海戰에 참가했던 것이다.³⁴⁾

일본 함대 133척이 통과한 명량해협은 珍島와 海南郡의 花源半島 사이에 있는 1km 내외의 水路로서 가장 좁은 곳의 폭은 300m 정도이다. 이곳의 최저 水深은 1.9m이고, 潮流의 속도는 알려진 바와 같이 최대 11.5노트(kn)로 매우 빠르다.³⁵⁾ 이곳은 20리 밖에서도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해서 ‘울돌목’이라 이름할 정도로 물살이 빠르고 수심이 얕아 항해하기 위험한 狹水路였다.

이 때문에 일본 함대는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형 軍船인 安宅船은 해협 밖에 대기시키고, 중소형 군선인 關船만으로 협수로를 통과하여 이순신 함대와 대결하려했던 것이다.³⁶⁾ 일본측의 주력선이자 상대적으로 전투력이 높았던 安宅船이 해전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관선 중심의 일본 함대는 전투력 면에서 조선 수군보다 열세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³⁷⁾

다음으로 명량해전의 자세한 전투 경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16日, 명량해협의 潮流는 오전 7시경에 잠시 멎는 停潮(低潮)가 되고, 이후 北西流가

33) 李弘毅·李鳳祥, 『忠武公家乘』 권3, 紀述 李芬 撰 「行錄」, 1709.

34) (日本)參謀本部, 『本編』, 『日本戰史 朝鮮役』, 1924, 368쪽; 佐藤和夫, 『海と水軍の日本史』, 原書房, 1995, 303쪽 등에 의하면 명량해전에 동원된 일본 함대는 藤堂高虎, 加藤嘉明, 脇坂安治, 菅達長, 來島通總 등 諸將이 이끈 300여 척 규모였다.

35) 趙成都, 앞의 논문 43~44쪽; 노트(kn)는 선박의 항해 속도를 표시하는 단위로써 1시간에 1해리(1,852m)를 움직인 속도가 1kn이다.

36) (日本)參謀本部, 『日本戰史 朝鮮役』, 『本編』, 1924, 368·369쪽; 宇田川武久, 『日本の海賊』 誠文堂新光社, 1983, 265쪽.

37) 『宣祖實錄』 권126, 선조 33년 6월 丙戌條에는 安衛의 戰船 한 척을 일본 수군이 깨뜨리지 못한 것은 일본 軍船이 작았기 때문이라는 李恒福의 언급이 있다.

시작되어 일본 함대가 海峽을 통과해 우수영 앞 바다로 진격하기 용이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³⁸⁾ 때문에 출전 준비를 서두려 마친 일본 함대는 오전 7시 이후 於蘭津을 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실이 探望軍에 의해 즉시 보고되었고, 이순신은 곧 諸將을 소집하여 작전 지시를 내리는 등 결전을 준비하였다.³⁹⁾

이후 양측 함대의 접전 과정을 보면, 먼저 이순신 함대는 오전 9~10시경에 전투 준비를 마치고 우수영 앞 바다로 나와 작전대로 진형을 갖추고 일본 함대를 기다렸다. 반면, 일본 함대는 於蘭津에서 鳴梁 근처까지 전진해 온 후, 전술한 바와 같이 關船으로 구성된 133척의 함대만으로 명량해협을 통과하였다. 명량해전은 해협을 통과한 일본 함대가 우수영 앞 바다 쪽으로 방향을 틀고 이순신 함대를 에워싸면서 시작되었는데, 그 시각은 오전 11시 전후로 추정된다.⁴⁰⁾

해전은 처음에 일본 關船 여러 척이 이순신의 大將船을 여러 겹으로 포위 공격하면서 조선 수군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시작되었다. 더욱이 이순신의 대장선 한 척만이 각종 포와 화살을 난사하며 대응할 뿐 나머지 戰船들은 주저하면서 대응하지 못하였다. 즉, 이순신 휘하의 戰船들은 일본 함대의 기세에 눌린 나머지 初戰에는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이 때 이순신은 우선 대장선의 장병에게 '일본 배 천 척이라도 우리 배를 당할 수 없다'면서 射殺에 주력하라고 독전하였다. 이순신은 이 해전에서 몸소 최선봉에 나서 일본 함대에게 포위 당한 채 긴 시간 동안 홀로 버텼다. 이 때 일부 세력은 도주하려는 듯이 몇 백 미터나 뒤쳐졌는데, 신호 깃

38) 이에 대한 註)1의 논문 세 편을 비교하면, 趙成都와 崔斗煥·金一相은 潮流 方向을 반대로 해석한 점이 발견된다. 潮流를 주목한 것은 趙成都의 논문이 최초였지만, 해석 근거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後者의 해석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39) 李舜臣, 『亂中日記』 丁酉年(1597) 9월 16일.

晴 早朝 望軍進告內 賊船無慮二百餘隻 鳴梁由入 直向結陣處云 招集諸將 申明約束 舉碇出海則 賊船一百三十三隻 回擁我船.

40) 崔斗煥, 앞의 논문, 1991, 600~601쪽 ; 金一相, 앞의 논문, 1993, 207~209쪽 참고.

발로 불리내자 巨濟縣令 安衛와 中軍 金應誠 등이 먼저 전진해 왔다. 이순신이 이들을 강하게 질책하자, 두 戰船이 먼저 돌격했고 나머지 戰船들도 함께 돌진하면서 본격적인 접전 단계에 접어들었다.⁴¹⁾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던 潮流가 이번에는 高潮에서 잠시 멈췄다가 이순신 함대에게 유리한 흐름인 南東流로 바뀌었다.⁴²⁾ 이와 같이 바뀐 潮流를 타고 安衛의 전선을 선두로 함대 전체가 일본 함대를 향해 돌진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의 세력이 10배나 많았기 때문에, 먼저 달려간 安衛의 전선이 포위되고 말았다. 이 때 이순신의 戰船을 비롯한 모든 세력이 집중 공격을 펼쳐 안위의 전선을 구하는 동시에 잠깐 사이에 31척을 격파하면서 결정적인 勝機를 잡았다. 이 과정에서 이순신 함대는 유명한 해적 출신 장수였던 來島通總을 射殺하는 등의 전과를 올려 일본 수군의 기세를 꺾었다.⁴³⁾

이와 같이 이순신 함대의 강력한 반격으로 31척의 軍船을 잃은 일본 함대는 일단 해전을 중지하고 물러났는데, 이 때가 오후 2시경이었다. 이후 한동안 양측이 대치하다가 일본 함대가 저물 무렵 潮流를 타고 후퇴함으로써 명량해전은 종료되었다.⁴⁴⁾ 이순신 함대는 승세를 타고 일본 함대를 추격하려했지만 日氣가 불순하여 파도가 높고 바람도 逆風이어서 포기하고, 이 날 밤에 함대를 唐筍島(全南 新安郡 岩泰面)로 이동하였다. 鳴梁海戰은 이순신이 이 날 日記 말미에 ‘此實天幸’이라고 기록했던 바와 같이 10배의 일본 함대를 상대해 승리한 힘겨운 싸움이었다.

41) 李舜臣, 『亂中日記』 丁酉年(1597) 9월 16일.

42) 『李忠武公全書』 권11, 附錄3 李恒福 撰 「忠愍祠記」 ‘時早潮方退 港口湍悍 巨濟縣令安衛 順潮而下 風便迅駛 船行如箭 直衝陣前’; 柳成龍, 『懲愆錄』 卷二 ‘船載大砲 乘潮至順流攻之 賊敗走 軍聲大振’ 등은 당시 潮流의 변화를 언급한 기록들이다.

43) 佐藤和夫, 1995, 『海と水軍の日本史』 下卷 原書房, 305쪽에 의하면 이날 來島通總이 戰死한 것은 확실하다. 한편 『亂中日記』의 馬多時는 來島와 혼동되지만, 다른 인물로서 部將 將帥 중의 한 사람으로 추정된다.

44) 李舜臣, 『亂中日記』 丁酉年(1597) 9월 16일.

諸船知不可犯 一時鼓噪齊進 各放地玄字 聲震河岳 射矢如雨 賊船三十一隻撞破 賊船避退 更不近

이상에서 살펴본 명량해전의 勝因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 첫째는 이순신이 정비한 전선 13척의 전투력이 휘하에 정예 장병이 모여들어 크게 증강되었고, 반면에 일본 함대는 鳴梁의 협수로 때문에 주력함인 安宅船이 해전에 참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海路遮斷 戰術의 채택과 鳴梁의 潮流를 이용한 점 등 이순신의 뛰어난 戰略戰術을 들 수 있다. 또한 그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직접 단독으로 일본 함대와 한동안 맞섬으로써, 우리 함대가 戰意를 가다듬고 돌진해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해전을 지휘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변 피난선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전투 참여가 큰 힘이 되었던 것을 들 수 있다.⁴⁵⁾

한편, 명량해전은 거북선의 참전과 鐵鎖 가설 여부 등 몇 가지 쟁점이 남아있다. 먼저 거북선 참전 문제는 李芬이 기록한 「行錄」에 ‘全羅右水使 金億秋를 불러 兵船을 수습하게 하고, 諸將에게 명하여 거북선을 꾸며 만들어 軍勢를 돋우도록 하였다’라는 기록이 발단이 되고 있다.⁴⁶⁾ 趙成都는 앞의 논문에서 李芬의 거북선 관련 기록을 그대로 인정하여 거북선으로 꾸민 전선 몇 척이 명량해전에 참가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⁴⁷⁾

그러나 李芬이 이순신의 조카로서 統制營에 자주 왕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명량해전을 전후한 시기에는 종군한 사실이 없다.⁴⁸⁾ 따라서 이 기록은 훗날 전해들은 바를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全羅右水使 金億秋에게 戰船을 수습하도록 명령한 사실도 『亂中日記』를 통해 보면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순신은 김억추가 합류한 첫 날부터 船格과 器械를 갖추지 못한

45) 海南文化院, 『鳴梁大捷의 再照明』, 1987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勝因을 언급하였다. 趙援來는 특히 세 번째 요인, 즉 전라도 沿海民의 협조를 강조하면서 첫 번째 승인 문제는 병력이 증강된 과정만 간략히 기술하였다.

46) 『李忠武公全書』 권9, 附錄 1 李芬 撰 「行錄」.
(八月) 十八日 到會寧浦 戰船只十艘 公召全羅右水使金億秋 使收拾兵船 分付諸將 粧作龜艦 以助軍勢.

47) 趙成都, 앞의 논문, 1982, 42~43쪽.

48) 『亂中日記』에는 조카 芬이 甲午年(1594) 1월 이후 일년에 한두 차례 다녀간 사실은 확인되지만, 丁酉年(1597) 4월 天安에서 배웅한 이후 종군한 기록은 없다.

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고, 이어 그를 萬戶職에나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 朝廷의 人事에 대한 불만을 적고 있다.⁴⁹⁾ 김억추는 정확한 사유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명량해전 이후 곧 교체되었다가, 이순신이 戰死한 뒤 다시 전라우수사가 되었다.⁵⁰⁾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이순신이 김억추에게 이러한 임무를 맡겼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순신 함대는 전술한 바와 같이 8월 18일은 會寧浦, 20일은 梨津, 24일은 於蘭浦, 29일에는 碧波津으로 陣營을 계속 옮겼다. 이동이 없던 기간에는 이순신이 몇 일간 외병 중이었거나 풍량이 계속되었고, 또 몇 일은 일본 함대를 추격하는 등 해상작전이 펼쳐졌다.⁵¹⁾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명량해전 이전까지 戰船을 거북선으로 개조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거북선은 이순신이 명량해전 이후 수군을 본격적으로 재건하는 시기에 改造 혹은 建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겠다.

다음으로 명량해협의 鐵鎖 가설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趙成都是 앞 논문에서 ‘철쇄를 설치하여 일본 군선을 격침시켰다는 설’을 소개하면서 사실 여부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⁵²⁾ 이후, 趙潑來는 이에 대해 사실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그는 左水營에 鐵鎖를 가설했던 사실과 일본 학자 靑柳綱太郎의 저서 『征韓役日韓史蹟』의 관련 내용 등을 소개하면서 명량 해협에 철쇄가 가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⁵³⁾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여러 情況으로 볼 때 이순신이 함대를 인수한 후 鳴梁海戰 전까지 철쇄를 가설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사료된다. 만약 철쇄 가설이 사실이라면, 명량해전 이전에 설치되었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할

49) 李舜臣, 『亂中日記』 丁酉年(1597) 8월 26일·9월 8일.

50) 『宣祖實錄』 권94, 선조 30년 11월 己亥條에는 李時言이 전라우수사로서 馳啓했고, 31년 3월에는 安衛가 이 직책을 맡고 있다. ; 같은 책 권107, 선조 31년 12월 己巳.

51) 李舜臣, 『亂中日記』 丁酉年(1597) 8월 18일~9월 15일.

52) 趙成都, 앞의 논문, 1982, 50쪽의 註)22번 참조.

53) 趙潑來, 1987 앞의 논문, 83~84쪽.

만한 문헌 자료는 없다. 또한 左水營의 철쇄는 이곳 철쇄와는 무관한 것으로 서로 연결시켜 볼 이유가 없다. 만약 철쇄 가설 때문에 승리했었다면 관련 기록이 반드시 남았을 것이란 점도 부정적인 판단을 갖게 하는 근거이다. 즉, 명량해전의 결과로 31隻을 격침하고 수백 명을 사살한 것 외에 추가로 확인되는 鐵鎖를 통한 전과는 없다.⁵⁴⁾

반면에, 18세기 史料로써 鐵鎖 가설을 언급한 李重煥의 『擇里志』는 壬亂 海戰에 관한 기록이 간략할 뿐 아니라 부정확하고, 그가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며 현지에서 들은 說話를 채록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지 않다.⁵⁵⁾ 철쇄 가설의 근거로 제시한 또 다른 기록으로 全羅右水使 金억추가 뛰어난 勇力으로 철쇄를 가설하고 이를 통해 수많은 일본 군선을 격침시켰다는 『湖南節義錄』⁵⁶⁾과, 金억추의 후손들이 20세기초에 펴낸 『顯武公實記』가 있다.⁵⁷⁾ 그러나 이들 史料 역시 후대에 꾸며진 설화를 채택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고, 후자는 최근에 만들어진 傳記로써 철쇄 가설을 증명할만한 史料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다.⁵⁸⁾

이와 같이 鐵鎖 가설은 당시의 정황이나 관련 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사실로 보기 어렵고, 단지 후대에 ‘조상의 전쟁 영웅담’이 확대 재생산되는 과

54) 명량해전의 戰果는 李舜臣의 『亂中日記』 丁酉年(1597) 9월 16일자 일기의 내용과 『宣祖實錄』 권94, 선조 30년 11월 丁酉條의 戰果 부분이 대략 일치한다.

55) 李重煥, 1750?, 『擇里志』, 『八道總論』 全羅道. 時倭水軍 自南海北上 水軍大將李舜臣 住筍海上 打鐵鎖橫亘 於石梁上 以俟之倭船 至梁上 冒於鐵鎖 則倒覆於梁下 梁上船不見底處…… 五百餘隻 一時全沒 隻甲不存 蓋其時 沈惟敬 給倭使 久留平壤 倭則欲待水軍偕上…….

56) 全羅南道, 『一道學義諸公事實』, 『湖南地方壬辰倭亂史料集 4-湖南節義錄-』, 1990, 355~356쪽의 金億秋 기록을 검토하면 事實과 다른 내용도 있고 그의 勇力에 관한 것과 일본 장수의 용모 등 說話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이것은 湖南節義錄이 임진왜란 200년 후인 1799년에 작성된 후대의 기록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57) 錦江祠, 『顯武公實記』, 靑友堂出版社, 1970는 20세기초에 저술된 實記를 바탕으로 후손들이 관련 기록을 재편집하고 國譯해서 펴낸 책이다.

58) 『李忠武公全書』 권16의 『同義錄』은 18세기말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1935년에 새로 권15와 16이 추가되면서 첨가된 것이므로 직접적인 史料라고 볼 수 없다.

정에서 만들어진 ‘說話’를 역사적 사실로 오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⁵⁹⁾

또 다른 한 가지는 ‘명량해전의 戰場이 기존 연구의 지도에 표시된 곳이 올바른가’라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명량해전의 전장은 鳴梁의 最狹部 근처로 알려졌고, 海戰을 설명하는 地圖도 이와 같이 작성되어 왔다. 그런데 실제로 해전이 이곳에서 벌어졌는지는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이곳은 지형이 좁을 뿐 아니라 물살이 가장 빠른 곳이기 때문에 停潮期의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鳴梁海戰은 어느 곳에서 펼쳐졌는가. 그 해답은 이순신의 해전 당일 일기의 序頭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아침 일찍 別望軍이 전한 일본 함대의 접근 보고를 받고 전투 준비를 마친 후 바다로 나갔는데 곧바로 일본의 133척이 우리 戰船들을 에워쌌다고 한다.⁶⁰⁾ 이 기록으로 볼 때 명량해전의 전장은 우수영 근처 앞 바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곳은 해협을 통과해 우측으로 구부러진 곳으로 해협의 폭이 보다 넓어지고 流速이 다소 약해지는 곳으로써 海戰이 가능한 장소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전장 문제는 근거할만한 문헌 자료가 없는 한계가 있지만 지형적으로 볼 때, 지도 Ⅱ의 장소가 보다 타당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해 본다.

명량해전이 이상과 같은 쟁점들을 남긴 것은 이 해전이 결정적인 순간에 극적인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졌던 것에 비해 당시 사실을 기록한 문헌 자료가 부족했던 탓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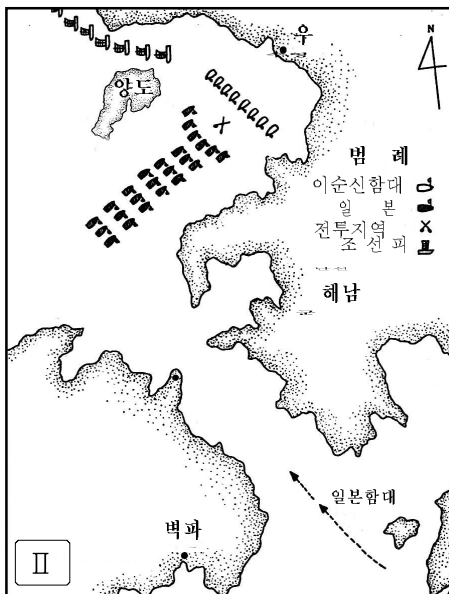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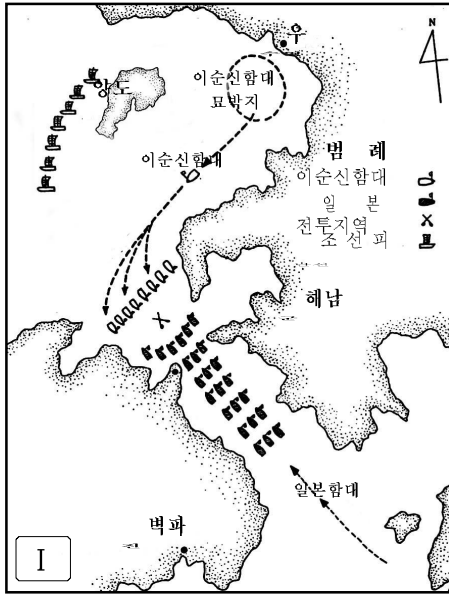
그리고 이 해전의 역사적 의의는 漆川梁 패전 이후 조선 수군이 기사회 생하면서 艦隊 재건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과⁶¹⁾ 일본 수군의 西海 진출 기도를 차단하며 制海權을 확보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59) 靑柳網太郎의 『征韓役日韓史蹟』이란 책은 찾아 볼 수 없었고, 그가 1916년에 펴낸 『李舜臣全集』, 『珍島鳴梁の戰』에 趙潑來의 논문이 소개된 것과 동일한 내용이 있다. 그렇지만 이 기록도 철쇄 가설의 출처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60) 李舜臣, 『亂中日記』 丁酉年(1597) 9월 16일 (앞의 註39)와 같음.

61) 鳴梁海戰을 전후한 시기에 많은 將兵이 모여든 사실은 살펴본 바 있다. 高下島와 古今島로 移陣을 거듭하며 수군을 재건하는 과정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지도 1> 鳴梁海戰 상황도 I · II



CI

또한 이 해전의 승리에 대해 明의 經理 楊鎬는 이순신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며 銀과 緋緞으로 시상하였다.⁶²⁾ 이어서 朝鮮 朝廷은 明에 보낸 咨文을 통해 '閑山島 패전 이후 南海가 우려되었으나 우리 수군이 승리하여 賊鋒이 좌절되었으니 이로 인해 일본 軍船이 西海에는 진입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이 해전의 의의를 확언한 바 있다.⁶³⁾

한편, 20세기초에 일본에서 펴낸 『日本戰史 朝鮮役』은 이 해전에 단지 수십 척이 참전하여 침몰된 것은 몇 척 뿐이었고, 또 이순신 함대가 늦게 唐筍島로 후퇴했을 때 일본 수군이 海路에 어두워 추격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海戰 전체를 왜곡하였다. 그러나 그 말미에 일본 수군이 熊川으로 후퇴하여 西進이 좌절되었다고 기록함으로써 결국 명량해전의 의의를 스스로 인정하고 말았다.⁶⁴⁾ 최근에는 명량해전에서 이순신의 활약으로 일본 함대가 패퇴했다고 사실대로 서술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⁶⁵⁾

4. 越冬(高下島)과 수군 再建(古今島)

명량해전 이후 朝·日 양국 수군이 계절적인 이유로 사실상 해전을 중단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후에 조선 수군은 越冬을 위한 장소 물색에 나섰고, 일본 수군은 慶尙道 熊川까지 후퇴하였다.

이순신 함대는 해전 직후 唐筍島를 거쳐 17일에 於外島, 19일에 法聖浦를 지났고, 이어 20일에 狷島, 21일에는 古群山島에 도착하였다. 이곳에 한 동안 머물던 함대는 10월 3일에 南下를 시작해서 9일에는 右水營으로 돌아

62) 『宣祖實錄』 권93, 선조 30년 10월 丁丑.

63) 같은 책 권94, 선조 30년 11월 丁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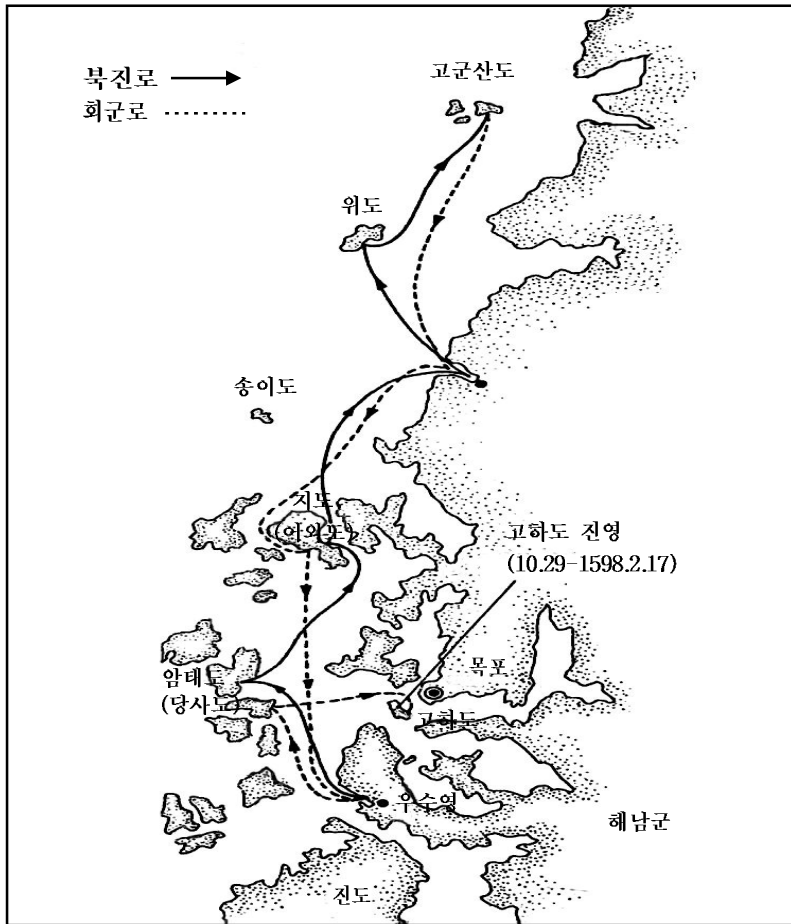
64) (日本)參謀本部, 『日本戰史 朝鮮役』, 1924, 369쪽.

65) 北島万次, 『豊臣秀吉の朝鮮侵略』, 吉川弘文館, 1995, 210~214쪽.

왔다.⁶⁶⁾ 이상의 함대 이동을 地圖에 표시하면 다음 <지도 2>와 같다.

이상과 같은 함대 이동은 다음 몇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지도 2> 鳴梁海戰 이후 이순신 함대의 이동 상황도



66) 李舜臣, 『亂中日記』 丁酉年(1597) 9월 17일~10월 9일.

첫째는 서남해 해안 근처의 일본군 침략 상황을 살피는 동시에 조선 수군의 존재를 시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추측된다. 둘째로 이순신은 島嶼 지역에 있던 피난선들과 그 인력을 수군 재건의 터전으로 삼기 위해 이들을 규합하려고 함대를 이끌고 다녔던 것이다. 또 다른 한 목적은 西海의 해로 사정을 파악하는 한편, 越冬에 적합한 지역을 찾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두 번째인 수군 재건을 위한 노력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순신 함대는 9월 17일 이후 西海로 향하면서 거쳤던 島嶼마다 300여 척, 혹은 수백 척의 피난선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⁶⁷⁾ 이 피난선들은 일본군의 추격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이순신 함대의 승리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이순신 함대가 진영을 이동할 때마다 군량 등을 기부하거나, 혹은 자원해서 휘하에 편입해 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⁶⁸⁾

사실 명량해전을 전후한 시기에 조선 수군에게 절실한 문제는 병력 모집과 군량 확보, 그리고 함대의 월동 대책 등이었다. 먼저 병력 모집 문제를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시기에 과거 이순신 휘하의 장병들이 다시 모여들어 戰船의 전투력을 증강함으로써 명량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해전 이후에도 계속되어 이순신 휘하로 자원해서 모여든 장병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⁶⁹⁾

이순신은 병력 모집과 함께 자신을 보좌할 인재를 발탁하였는데, 이 때

67) 『亂中日記』에 의하면 9월 17일 於外島에서 300여 척, 20일 獮島에 도착했을 때는 무수한 피난 선박이 있었다고 한다.

68) 李舜臣, 『亂中日記』 丁酉年(1597) 9월 17일 일기에 羅州의 進士 林愷 등이 수군의 승첩을 알고 와서 치하하면서 군량을 바친 것은 전자의 예이다. 그리고 후자는 『湖南節義錄』과 『李忠武公全書』 권16의 「同義錄」 등을 분석해보면 명량해전 이후 이순신 휘하에 합류한 인물들이 많은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69) 『李忠武公全書』 권13, 附錄5 「紀實」上에는 高下島의 군사가 천여 명으로 기록하였고, 유성룡의 『懲愆錄』에서는 古今島로 이동할 때 8천명이었다고 한다. 후자는 다소 과장된 수치로 볼 수 있고, 또 高下島에서 越冬할 때 일부를 귀향시켰다가 이듬해 다시 소집하면서 병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문무를 겸한 才士인 李宜濶도 그의 휘하에 들어오게 되었다.⁷⁰⁾ 그는 당시 20세의 청년이었지만 家學의 전통을 이어받은 학문과 지략이 있는 인물이었다. 이순신 휘하에서 군량 관리를 맡게 된 그는 私財를 군량에 보태기도 하였고, 海路通行帖을 발행하여 주변의 피난선들로부터 군량을 모집하는 실무를 담당하였다. 李宜濶이 해로통행첩 발행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⁷¹⁾ 이를 통해 열흘만에 만여 石의 군량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⁷²⁾

그런데, 해로통행첩 발행이 군량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된 것은 그만큼 당시 島嶼 지역에 피난선이 많았음을 뜻한다. 이 피난선들은 명량해전 이후 이순신 함대의 주변을 떠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전란 중에 안전지대를 찾았던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避亂船들은 柳成龍이 『懲愆錄』에서 지적한대로 財物과 穀食을 싣고 다녔기 때문에, 이순신 함대는 이들에게서 군량과 의복 등 군수 물자를 획득할 수 있었다.⁷³⁾ 요컨대 이순신 함대가 避亂船에게 인명과 재산의 보호를 제공했다면, 피난선들은 그들의 보급 창고 역할을 했던 것이다.

70) 五宜亭 李宜濶(1577~1636)은 晦齋 李彥迪의 손자이고, 정유재란 때에 慶州府尹 朴毅長 휘하에서 경주성 전투에 참여하였다. 戊戌年(1598)에 이순신의 佐幕(보좌관)으로 군량을 담당하면서 海路通行帖을 발행하여 군량을 크게 모았다. 노량해전 직전의 柁島해전에 참전하여 화살에 맞았고 이때의 부상으로 향리에 은퇴하였다.

李宜濶, 『五宜亭文集』(李源璣외, 1997 『國譯 五宜亭先生文集』 大邱) 참고.

71) 李宜濶, 『五宜亭先生文集』의 간행 연대는 대체로 20세기초로 추정되고, 이순신 휘하에서 군량을 담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海路通行帖을 제안했다는 것은 후대의 기록으로써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다. 『李忠武公全書』 권16, 『同義錄』의 李宜濶條에는 그가 제안한 것이라고 적고 있지만, 이 역시 1935년에 증보된 자료이다.

72) 柳成龍, 『懲愆錄』 卷二 28面(西厓全書編纂委員會, 『西厓全書』 권1, 1991, 613쪽).

患乏糧 作海路通行帖 令曰 三道沿海 公私船無帖者 以奸細論 毋得通行 於是 凡避亂乘船者 皆來受帖 舜臣以船大小差次 使納米受帖 大船三石 中船二石 小船一石 避亂之人 盡載財穀入海 故不以納米爲難 而以通行無禁爲喜 旬日得軍糧萬餘石.

73) 『李忠武公全書』 권9, 附錄1 李芬 撰 「行錄」; 같은 책 권13, 附錄5 「紀實」 上.

軍士又患無衣 …… 舜臣曰 今天溟海 寒士皆墮指 安能爲汝防禦乎 汝既有贏餘之衣 何不分我士卒 於是 士民競輸餘衣 又募民輸銅鐵 鑄大砲 伐木裝船 事事皆辦.

한편, 이순신 함대는 10월 9일, 全羅右水營으로 복귀한 후 월동하기에 적합한 곳을 찾다가 10월 29일에 羅州의 寶花島로 진영을 옮겼다.⁷⁴⁾ 寶花島는 高和島·寶和島·高下島 등으로도 불리며, 木浦에서 남서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에 있다. 이 섬의 지형은 서북쪽이 병풍처럼 높이 솟아있어 겨울에 북서풍을 막을 수 있는 구조였다.⁷⁵⁾ 이순신도 이 섬을 선택한 이유를 ‘北西風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배를 감추기에 적합하다’고 밝히고, 섬의 형세도 좋아 집을 짓고 留陣하기로 결정하였다.⁷⁶⁾

高下島로 진영을 옮긴 후 첫 번째 한 일은 가옥과 군량 창고를 짓는 것이었다. 10월 30일, 이 섬의 재목을 베면서 시작된 공사는 11월 15일에 이순신이 새 집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군량 창고 등의 건축이 계속되었다.⁷⁷⁾ 이처럼 건축을 서두른 것은 겨울 추위 때문에 군사들이 戰船에서 지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순신은 高下島에 留陣하는 동안 수군 재건에 필수적인 전선 건조와 군량 모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우선 그는 휘하의 군관을 주변 지역에 보내 木材를 조달했는데, 그 용도는 가옥과 군량 창고 건축과 造船 재료 두 가지였을 것으로 추측된다.⁷⁸⁾ 왜냐하면 12월 10일자 『亂中日記』에는 배 만드는 곳에 나가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다음 해 1월 2일에는 造船과 관련된 ‘新船落塊’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⁷⁹⁾ 그리고, 珍島의 戰船 건조 감독을 위해 군관 鄭應男을 보낸 기록으로 볼 때 高下島의 지역에서도 동시에 造船이 추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⁸⁰⁾

74) 羅州의 寶花島는 현재 木浦市 충무동(달동)의 高下島이다.

75) 李海濤, 『목포의 역사 -개항이전사-』, 『목포시의 문화유적』 목포대 박물관·전라남도·목포시, 1995, 35~36쪽.

76) 李舜臣, 『亂中日記』 丁酉年(1597) 10월 29일.

77) 李舜臣, 같은 책 丁酉年(1597) 10월 30일~12월.

78) 李舜臣, 같은 책 丁酉年 11월 6일·21일.

79) 李舜臣, 같은 책 丁酉年(1597) 12월 10일·戊戌年(1598) 1월 2일 日記의 ‘新船落塊’는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戰船을 만드는 工程의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80) 李舜臣, 같은 책 丁酉年(1597) 12월 5일.

다음으로 군량 모집에는 몇 가지 방법이 동원되었다. 첫째 방법은 백성이 일본군을 피해 흩어져 추수하지 못한 곳이 많았던 전라도 해안 지역에 군사를 파견해서 그 수확물을 거둬들이는 것이었다.⁸¹⁾ 이순신은 靈岩과 羅州 등지에 군관을 파견해 주인 없는 곡물을 추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관련자들을 체포하여 首謀者는 처형하고 從犯은 잡아 가두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⁸²⁾ 또한 그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휘하의 지방관과 장수들이 각지에서 가능한 많은 군량을 확보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감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⁸³⁾

둘째 방법은 義穀을 모집하는 것이었다. 각처의 士族들이 자원하여 의곡을 모아 바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그 양은 대개 수십 石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⁸⁴⁾ 또한 이순신은 휘하 將官들을 각처에 파견하여 군사 모집과 동시에 군량을 확보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한 예로 11월 5일에 靈岩郡守 李宗誠은 집 짓는 役軍들을 배불리 먹인 후, 이순신에게 군량미 200 石과 中租 700여 石이 준비된 상황을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군량은 철저히 관리되었는데,⁸⁵⁾ 이를 위해 가옥과 함께 군량 창고를 건설했던 것이었다. 또 閑山島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금을 구워 군량을 마련하는 재원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고하도로 옮기기 몇 일 전에 金宗麗를 所音島 등 13개 섬의 소금을 관리하는 감독관으로 보냈다는 기록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⁸⁶⁾

그런데, 고하도는 지리적으로 西海쪽으로 약간 치우쳤기 때문에 南海에서의 해상 활동에 적절치 못하였고, 섬이 작아 곡물의 자체 생산이 적었으

81) 『宣祖實錄』 권95, 선조 30년 12월 丁丑.

82) 李舜臣, 『亂中日記』 丁酉年(1597) 12월 12일.

83) 李舜臣, 『亂中日記』 丁酉年(1597) 12월 4일.

巨濟及金甲島 天城 自打作還(務安及田希光等還歸).

84) 李舜臣, 같은 책 丁酉年(1597) 11월 7일·28일.

85) 李舜臣, 같은 책 丁酉年(1597) 12월 4일.

86) 李舜臣, 같은 책 丁酉年(1597) 10월 20일.

며 유입된 백성을 수용할 공간도 부족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순신은 1598년 2월 17일에 統制營을 현재의 莞島 우측에 위치한 古今島로 옮겼다.⁸⁷⁾ 이순신은 고금도 이진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小西行長은 曳橋에 주둔하고 있으며 2월 13일에는 平秀家가 그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같은 곳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 2월 16일에 諸將을 거느리고 보화도에서 바다로 나아가 17일에 康津 경내의 古今島로 진을 옮겼습니다. 고금도 역시 호남 좌우도의 内外洋을 제어할 수 있는 요충지로 산봉우리가 중첩되어 있고 候望이 잇대어져 있어 형세가 閑山島보다 배나 좋습니다. 남쪽에는 智島가 있고 동쪽에는 助藥島가 있으며, 농장도 역시 많고 閑雜人도 거의 1천 5백여 호나 되기에 그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였습니다. 興陽과 光陽은 癸巳年부터 屯田을 하였던 곳으로 軍民을 招集하여 정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啓下하였다.⁸⁸⁾

이순신은 이 보고에서 古今島 移陣 목적을 小西行長이 順天의 曳橋에 주둔한 상황에 대처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해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금도의 전략적 위치에 대해 湖南 左右道 바다를 제어할 수 있는 요충지라는 사실과, 농경지가 넓고 유입 인구가 많아 군량에 보탬이 될 식량의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고금도의 자연 환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이 섬은 면적이 약 44.3km²로 우리나라에서 열 일곱 번째로 큰 섬이다.⁸⁹⁾ 고금도는 주변의 다른 섬들과 달리 ‘이 섬의 곡물 생산만으로 莞島郡 전체가 자급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예로부터 농경지가 발달되어 있었다. 섬의 서쪽에는 246m의 指南山이 있고 북쪽에 215m의 鳳凰山, 그리고 남쪽에 70m의 望德山이 있

87) 『李忠武公全書』卷9, 附錄1 李芬 撰 「行錄」, 「戊戌年(98) 二月十七日 移陣古今島」.

88) 『宣祖實錄』권98, 선조 31년 3월 癸卯

89) 이하는 古今面 사무소의 홈페이지(www.gg365.com) 자료를 참고한 내용이다.

고 주변에 다른 높은 산이 없어 堠望에도 편리하다.⁹⁰⁾

그렇다면 고금도로 통제영을 옮겼을 당시의 병력과 戰船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이순신이 高下島에 머물면서 백성을 招集한 결과, 휘하 병력이 증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단편적인 기록들을 종합하여 그 규모를 추정해 볼 수밖에 없다.

먼저 유성룡의 『懲毖錄』에는 고금도에 주둔했을 때 이미 군사가 8천명이어서 군량 부족을 걱정했다는 기록이 있다.⁹¹⁾ 이 외에 직접 군사의 숫자를 언급한 것은 1598년 4월초에 宣祖가 提督 麻貴를 방문하여 나눈 대화 중에 이순신의 수군 병력이 2천여 명이라고 답한 것이 유일하다.⁹²⁾ 그런데, 이 숫자는 명량해전 직후 高下島에 들어갈 때보다 2배로 증가한 수치이지만, 유성룡이 언급한 8천명과는 큰 차이가 있다. 여기서 2천여 명이라는 것은 명량해전 직후 수군을 모집하기 시작한 초기에 보고된 수치였거나, 또는 宣祖가 우리 수군 세력을 줄여서 대답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고금도로 옮긴 직후에 8천명이었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戊戌年(1598) 가을 무렵에는 그 이상의 병력을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고금도의 제반 환경이 좋은 상황에서 추가로 유입된 백성의 수가 많았고, 이에 따라 병력도 자연스럽게 증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李芬의 「行錄」을 비롯한 몇몇 史料에서 당시 상황을 서술한 다음 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地勢가 기이하고 또 그 곁에 농장이 있어 편리하므로 공(이순신)은 백성들을 모아들여 농사짓게 하고 거기서 군량을 공급받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군대의 위세가 이미 강성해져서 南道 백성들로 공을 의지해 사는 자들이

90) 『康津縣古今鎮地圖』(奎 10444)(서울대 규장각, 『朝鮮後期 地方地圖』-全羅道篇-, 1996) 참고.

91) 柳成龍, 『懲毖錄』 권2(西厓先生記念事業會, 影印本 『西厓全書』 권1, 1991, 613쪽).

92) 『宣祖實錄』 권99, 선조 31년 4월 丁巳.

數萬 戶에 이르렀고 군대의 장엄함도 閑山鎭 때보다 열 배나 더하였다.⁹³⁾

위 인용문의 수만 호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전쟁 중인 상황에서 전라도 백성들이 이순신 휘하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휘하 병력이 점차 증강되었을 것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古今島 통제영 초기의 전력을 살펴볼 수 있는 戰船의 척수는 기존의 13척 외에 40척이 추가로 건조된 사실이 확인된다. 즉, 戊戌年(1598) 2월에 經理 楊鎬에게 군량 운반선의 造船 상황을 보고할 때 ‘兵船은 兩湖의 民力이 고갈되어 더 만들도록 독촉할 수가 없는데, 수군이 이미 40여 척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⁹⁴⁾ 이것은 高下島에서 고금도로 이동하기 전에 보고된 것이므로, 고금도 이진 이후에 건조된 것은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고금도 이진 이후에도 이순신은 해전을 위한 제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먼저, 전술한 海路通行帖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그 발행 시기에 대한 기록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柳成龍의 『懲毖錄』은 古今島 이진 이후부터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李芬의 『行錄』과 『宣廟中興志』 등의 자료는 高下島 진영 때부터라고 기록하고 있다. 어느 것이 정확한지 알 수 없지만, 정황으로 볼 때 고하도에서 시작했다하더라도 해상 활동이 어려운 겨울이었으므로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고금도로 옮긴 이후에 海路通行帖 발행이 본격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⁹⁵⁾

그리고, 古今島 統制營에서는 이순신이 이전에 시행했던 여러 가지 전쟁 준비가 종합적으로 반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군량과 병력의 모집은 중요한 과제였는데, 특히 명나라 수군의 합류 사실이 통보된 이후

93) 『李忠武公全書』 권9, 附錄1 李芬 撰 『行錄』.

94) 『宣祖實錄』 권97, 선조 31년 2월 丁丑.

95) 李殷相, 『完譯 李忠武公全書』 下 成文閣, 1989, 120~121쪽 참고.

에는 이에 대비한 군량 확보가 절실한 문제였다.⁹⁶⁾ 고하도 진영에 있을 때부터 군량창고를 짓고 필요한 군량을 비축한 결과, 조선 수군의 군량은 자급이 가능했지만 명나라 수군의 군량이 문제였다.⁹⁷⁾ 명의 수군이 처음 합류했을 때에는 조선 수군이 비축했던 군량으로 우선 지급하였다. 이후에는 명나라에서 보낸 군량을 운송해서 사용했는지,⁹⁸⁾ 아니면 조선 수군이 준비한 군량으로 계속 지급했는지 알 수 없지만 終戰 때까지 군량 부족이 문제 되지 않았던 것만큼은 확실하다.

이순신은 이전처럼 屯田을 다시 시작했는데, 고금도와 주변 여러 곳이 예전에 둔전으로 활용했던 곳이고 모여든 백성들도 많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경영할 수 있었다.⁹⁹⁾ 또한 그는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鹽田을 통해 생산된 소금을 판매하여 군량을 마련하는데 一助하였다.¹⁰⁰⁾

戊戌年(1598) 2월에 고금도로 통제영을 옮긴 것은 결과적으로 군사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양호한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의미는 小西行長이 주둔한 順天의 曳橋로부터 100여 리 떨어진 곳에 陣營을 뒀으로써 일본 수군의 해상 활동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를 확보한 것이었다.

96) 李舜臣, 『亂中日記』 丁酉年(1597) 11월 29일; 『宣祖實錄』 권98, 선조 31년 3월 庚子條 등은 명나라 수군의 南下 관련 기록이다.

97) 『宣祖實錄』 권101, 선조 31년 6월 丁丑.

98) 같은 책 권102, 선조 31년 7월 庚寅.

99) 『李忠武公全書』 권13, 附錄5 「紀實」 上; 『宣祖實錄』 권106, 선조 31년 11월 戊申.

100) 『李忠武公全書』 권13, 附錄5 「紀實」 上.

煮鹽貿販 數朔之內 得穀數萬石 壯士雲集 軍聲復振.

5. 맺 음 말

명량해전은 칠천량해전 패배로 상실한 제해권을 다시 확보해 나가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일전이었다. 이로 인해 이 해전에 대한 후세의 관심이 매우 컸고, 때문에 역사적 사실과 설화를 혼동하는 상황까지 일어났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여기서는 본문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 말을 대신하려 한다.

이 해전의 승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李舜臣이 해안으로 南下하면서 작지만 강한 함대 전력을 형성한 것이 첫째 요인이고, 그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인근 피난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또 다른 큰 요인들이었다. 특히, 이순신이 명량의 협수로를 전장으로 선택한 것과 제일선에서 술선수범한 것은 그가 왜 위대한 장수인지를 알려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명량해전과 관련된 두 쟁점은 거북선 참전과 철쇄 가설 여부인데, 결론적으로 두 가지 모두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먼 것이라 하겠다. 우선 거북선 참전 문제는 이순신 함대의 이동 상황 등 당시 여건을 살펴볼 때 명량해전 이전에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철쇄 가설 역시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불가능했다는 것과 그 說을 증빙하는 모든 자료가 역사적 사실을 증거 할만한 사료 가치가 없는 것들임을 밝힌 바 있다. 즉, 철쇄 가설 문제는 전후 20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후손들이 先代를 전쟁 영웅으로 꾸미는 가운데 발생한 說話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명량해전 이후 조선 수군은 越冬을 위해 적합한 곳을 물색하다가 지금의 목포 앞 바다에 있는 高下島에 100여일 이상 머물렀다. 이 곳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전력을 회복한 조선 수군은 다시 莞島 우측의 古今島로 移陣하면서 본격적인 전력 강화에 나섰다. 그 후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이 펼쳐질 때까지 전력 강화를 위해 군량 확보와 병력 충원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나갔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명량해전은 정유재란 발발 초기부터 승승장구하던 일본군에게 육지의 稷山전투에 이어, 海戰에서 10배 이상의 전력 차이를 극복하고 대승을 거두면서 戰勢를 역전시킨 중요한 일전이었다. 그리고, 이 해전 이후 이순신은 칠천량 패전 이전과 비견될 수 있는 수군 전력을 재건하기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갔던 것이다.

KCS I